

러, 핵군축협정 참여 중단 선언 美 “무책임…유심히 지켜 볼 것”

블링컨 “美·동맹 적절한 준비”

국무부 “핵태세 바꿀 이유 없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미국과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新)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스를 방문 중인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러시아의 발표는 매우 유감스럽고 무책임한 것”이라며 “우리 러시아가 실제로 무엇을 할지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물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와 동맹의 안보를 위해 적절하게 태세를 갖추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또 “우리는 세계나 우리와의 (대러시아)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러시아와 전략적 무기 제한에 대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 분야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최근 위협 감소에 대한 P5의 최근 회의가 보여주듯이 우리 협정(뉴스타트) 및 핵 안정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전히 러시아와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미국은 주요 군비통제 조치를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CNN이 전했다.

P5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5개국을 뜻한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CNN에 러시아의 뉴스타트 참여 중단 선언과 관련해 “실질적인 영향이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며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핵태세, 전략태세를 바꿀 어떠한 이유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은 국정연설에서 뉴스타

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2010년 체결된 이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 양국 핵탄두(1천550개)와 운반체(700개)를 일정 수 이하로 줄이고 쌍방 간 핵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91년 7월 미국과 옛소련 간에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스타트·START)의 맥을 잇는 협정이어서 뉴스타트로 불린다.

이 협정은 2021년 2월 한 차례 연장을 통해 2026년 2월까지 유효한 가운데, 양국은 작년 11월 조약 이행을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연기 통보로 대화가 중단된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이 핵실험을 하면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라며 미국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 통제도 협정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다.

다만 이번 결정이 협정 탈퇴가 아닌 중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키이우 방문한 멜로니(左) 총리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이 21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맞고 있다. 멜로니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24일)을 사흘 앞둔 이날 키이우를 전격 방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태국, 선진국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 시행

단계적 감축 2025년 전면 금지

태국이 폐(廢)플라스틱 수입 제한에 돌입했다.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여 2025년에는 전면 금지한다.

22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제한 정책을 내각이 승인했다고 정부가 전날 밝혔다.

올해에는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유 무역지구 내 14개 업체만 수입이 허용된다. 내년에는 수입량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25년에는 전면 금지한다.

정부는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고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선진국 쓰레기 홍수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남아시아 각국은 최근 선진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로 몸살을 앓아왔다.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 정도를 처리하던 중국이 2018년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세계적인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다.

이후 선진국 플라스틱 쓰레기가 동남아로 밀려들었다. 환경 오염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자 태국 정부는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폐플라스틱 관련 대책을 마련해왔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꺼내 재활용하는 방안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등 태국 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당국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연간 약 200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나오며, 이 중 약 4분의 1만 재활용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들 ‘마지막 장난감’ 풍선 다는 튀르키예 남성 38세 튀르키예 남성인 오군 세베르 오쿠르가 21일(현지시간) 남부 하타이주 주도 안타키아에서 전날 규모 6.3의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곳곳에 빨간 풍선을 달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 ‘다케시마의 날’ 맞아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시마네현 행사에 각료 참석

일본 정부가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계기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마쓰노 장관은 “계속해서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지켜낸다는 결의 아래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마네현이 이날 오후 시마네현 마쓰에에서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나가노 히데유키 내각부 장관이 참석한다”고 확인했다.

시마네현이 각료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참한 이

유에 대해서는 “정부 내 제반 정세에 근거해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마네현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총리, 외무상, 관방장관, 문부과학상, 농림수산상, 영토담당상 등 내각 핵심 인사 6명에게 참석 안내장을 보냈으나 각료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11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관을 파견한다. /연합뉴스

기후위기 예외 없다…남극도 온난화 직격탄

바다얼음 해빙 면적 역대 최대치 여름해빙 아예 사라져버릴 수도

남극의 해빙(바다얼음)이 위성 관측 사상 역대 최소 면적으로 쪼그라들었다.

북극보다 온난화 영향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던 남극마저 기후변화 직격탄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립설빙데이터센터(NSIDC)는 21일(현지시간) 남극 대륙을 둘러싼 해빙 면적이 13일 기준 191만km²로 1978년 시작된 관측 사상 최소 면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존 기록은 작년 2월25일 기록한 192만km²였다. 2년 연속 역대 최소 기록이 경신된 셈이다.

더구나 아직 남극의 여름이 1주일만 더 남아 있어 면적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작지 않다. 볼더 콜로라도대학의 빙하학자 테드 스캬보

스 교수는 “단순한 최저기록이 아니다”라며 “해빙 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변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남극은 그동안 기후변화의 영향권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2016년부터 해빙 면적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부 전문가들도 남극이 또 번덕을 부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2022년에 이어 2023년까지 2년 연속 해빙 면적이 최저치를 찍으면서 이런 분석은 힘을 잃는다고 CNN은 전했다.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에서 해빙을 연구하는 크리스찬 하스는 CNN에 “문제는 기후변화가 남극에 이르렀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파국의 시작인지, 다가오는 여름에는 남극의 해빙이 아예 사라져 버릴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